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事變三周年

今日支那事變三周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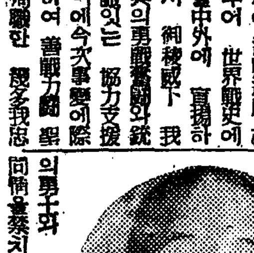
東亞新秩序建設은 世界秩序建設의 一環

總力을發揮、天業恢弘에驀進하라

南總督談

不退轉의決意로 聖戰目的完遂하라

中村朝鮮軍司令官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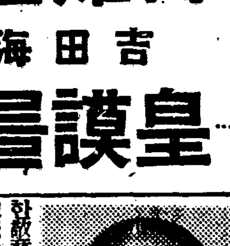


前線、銃後渾然一體 興亞聖業達成切望

米內首相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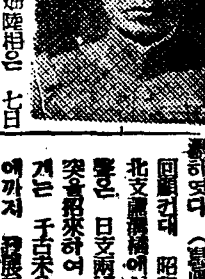
百難을突破 皇謨를扶翼

吉田海相談



第三國의妨害排擊 新秩序建設에邁進

畑陸相、確固한所信披瀝



汪總統、數日中에 對英和平勸告?

伊外相과對英策協議

占據面積 百六十萬平方粁 我全土의約二倍半

事變勃發以來의綜合戰果

一般的意見交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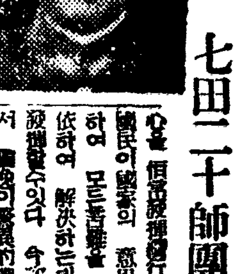
日支交涉第二日

靖國英靈에感謝 銃後의誠을다하라

川島精動總裁談

現地將兵에感謝

七田二十師團長談



佛艦隊武裝解除 獨軍實施를延期

辭令

健康의恢復과增進에 藥의濫用은不可!

—도리어健康을害하기쉬어—

健康을恢復하고 增進식힌다고 이藥저藥을濫用하는사람이만흐나 어것은도리어健康上조치못할뿐아니라 經濟的으로도避할일이다。더구나 지금과가튼非常時局에잇서서는 모든物資와原料의欠乏으로、品質이粗惡해지고 性能이劣下해진代用品이만흠으로 더욱조심하야藥을쓰지안흐면안된다。

世界的强壯劑ネオトン(NEOTONE)은 從前의聲價에어김업도록 萬難을排除하여 …… 今日에잇서서도 언제나다름업는優秀한效力을나타내여 더욱더욱그聲價를노피여가고잇다。

本劑는ビタミン各種外에鐵分・カルシウム・其他有效成分을含有한까닭에 呼吸器를튼튼히하고 補血과新陳代謝를 잘되게하야 消化를促進하며 食慾과體重을增加하야 細胞賦活로써抵抗力을强化하는作用이優秀하므로 病弱者는勿論・感氣를잘알른다든지・貧血・食慾不振은日常몸이虛하야 活動을마음대로못하는때는男女老幼를勿論하고本劑를쓰시라。

(本劑의信用에關하야는 醫師諸先生께問議하야보시라。)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奉天・天津・臺北

效果本位

適應症
虛弱・貧血・神經衰弱・呼吸器疾患
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
病後恢復期・授乳期・榮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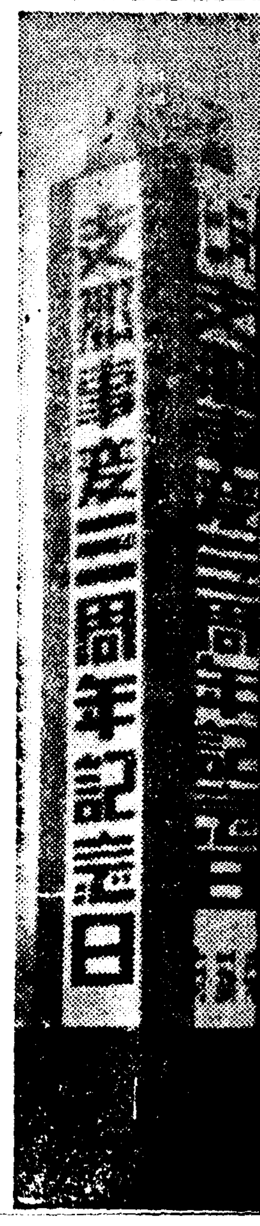
包裝 350錠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네오톤

皇軍에感謝, 銃後를肅淸

支那事變記念行事

비가와도擧行한다



奢侈品等製造販賣制限規則

內地는今七日부터, 朝鮮은 느저도 八月初엔實施

엽서질被服·洋品·家具等

違反者에는三年懲役又는萬圓의罰金

但、例外를設定、道知事의許可어더製造販賣

嘆息하는"紳士淑女"

몸치장도 제맘대로못하게된다

內地의禁止·制限品目

朝鮮의基準되는點이注目處

未完成貯水池 決潰危險直面

避難가다溺死

◇……사진설명 = 상은 한강인도교 중은 침수된 서뚝도리 하는 물에잠긴 모포다……◇

漢江은減水

龍山署管內水害는增

西部各町浸水

自動車道路不通

江華金浦京城間에도

西井里驛附近 複線線路切斷

돌담이문허저 老人一名即死

陵谷水色間의 堤防도危險

對答없는"모시모시"

暴雨로府內各電話線에故障

屍體는大同江에

所持金을强奪한후 發見되어嫌疑者逮捕

鍾路券番에서 慰問袋를發送

整地와建築業者들은 이事實을正視하라

石築崩壞가慘變의重大原因

築臺規則을違反 物資와技術도缺陷

築臺는建築의基礎 精密한監視緊要

◇……石川道保安課長談

小鹿島更生園功勞者 周防博士의銅像建立

六千餘癩患者淨財九千餘圓

新人"소프라노" 李順甲孃渡米

市俄古音樂學校로

(사진은 이순갑양)

라이온齒磨 朝鮮有限會社創設

水簾洞에서滌暑

鳳頂庵에서"캠프"

洛山寺義湘臺미테서海水浴

本社主催 第五回 雪嶽山探險前記 【2】

운동경기

全國軟式庭球大會 朝鮮代表決定

七十名의豪華陣容

一般代表 / 學生代表 / 中等學校代表

東京留學生蹴球團 鄕土訪問蹴球

全朝鮮各地서轉戰

體育主事 山本壽喜多氏決定

國際式卓球選手權 女子部競技中止

今日의運動

日曜講話

今日…雨又는曇晴

難功不談

리부론은 二基조류폰아미드劑로擊退하시요!

最近簇出하는化學療法劑의大部分은 患者의個人的體質에따라各各腹痛·胃障碍·發熱·發疹等의 여러가지惡性의副作用을하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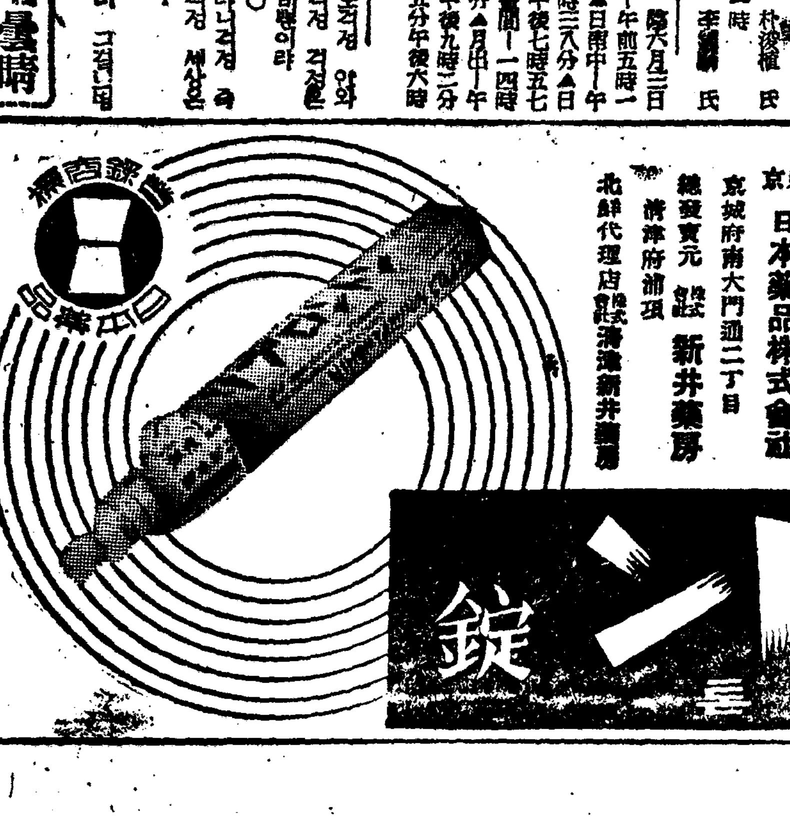
그러나 리부론은「二基조류폰아미드劑」로서 洗滌注射等의手苦가없고 全然副作用이없음으로 누구나安心하고服用할수있으며 極히短時日동안에 充分한效果를어들수있어 容易하게그目的을達成식힐수있는 驚異的化學治淋劑입니다。

急·慢性淋疾의患者를直接臨床治療에体驗한醫家諸賢이推奬하는純國産 즈루폰아미드劑인「리부론」을꼭試用하여보십시요。반드시여러분의期待에어김없는滿足한結果를보실것입니다。

適應症: 急·慢性淋疾、丹毒、産褥熱、敗血症、扁桃腺炎、中耳炎、子宮內膜炎、齒槽漏濃、膀胱炎、其他化膿性諸疾患。

包裝: 二〇錠、五〇錠 粉末二五瓦、一〇〇瓦、五〇〇瓦

東京 日本藥品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總發賣元 新井藥房 淸津府浦項
北鮮代理店 株式會社 淸津新井藥房



リブロントン錠
리부론톤

中部版

비는내렷스나 人夫不足

【平澤】 [illegible] 까지에 모심을비는내렷스나 인부부족으로 [illegible]

구둘浸水近四百戶
仁川府內松林町一帶水害
被害民의生活이憂慮

【仁川】 일주일여가까 계속하여 [illegible] 송림정(松林町) 일대 [illegible]

移秧督勵

【金浦】 김포군에서는 금년농번기 [illegible]

清平驛附近서 工夫轢死

【清平】 [illegible]

水位八米八〇!
避難民은京城府出張所서救護
永登浦署管內의水害

【永登浦】 지난일일이래 [illegible] 한강의 수위는 [illegible]

新吉町 浸水家屋 十五戶
道林町 浸水家屋 六十戶
堂山町 浸水家屋 五十戶
黑石町 浸水家屋 十戶
〃 倒壞家屋 一戶
銅雀町 浸水家屋 十一戶
本洞町 倒壞家屋 一戶
〃 流失家屋 四戶
鷺梁津町 浸水家屋 五戶

七,七記念行事 一部變更
豪雨의關係로

【仁川】 기보=칠월칠일 [illegible]

富川에暴雨繼續
田畓에水害莫大

【素砂】 부천일대에는 [illegible] 폭우가내리어 [illegible]

豪雨中에 移秧을督勵

【新院】 경기도양주지방에는 [illegible]

八千組合員遂陳情
叺의取引問題로道에
産組取引의可能性
本府府令에明示
今後當局態度注目

【江華】 [illegible]

水防團待機
金浦雨量百七十粍

【金浦】 [illegible]

大德郡砂糖配給에 統制組合結成

[illegible]

映畵의밤開催

【水原】 수원부업국에서는 [illegible]

暴利輩의弄奸으로 開城菜種騰貴一路
經警當局은嚴罰方針
公定價有無不關 暴利輩는嚴罰主義

【開城】 [illegible]

金浦郡創氏完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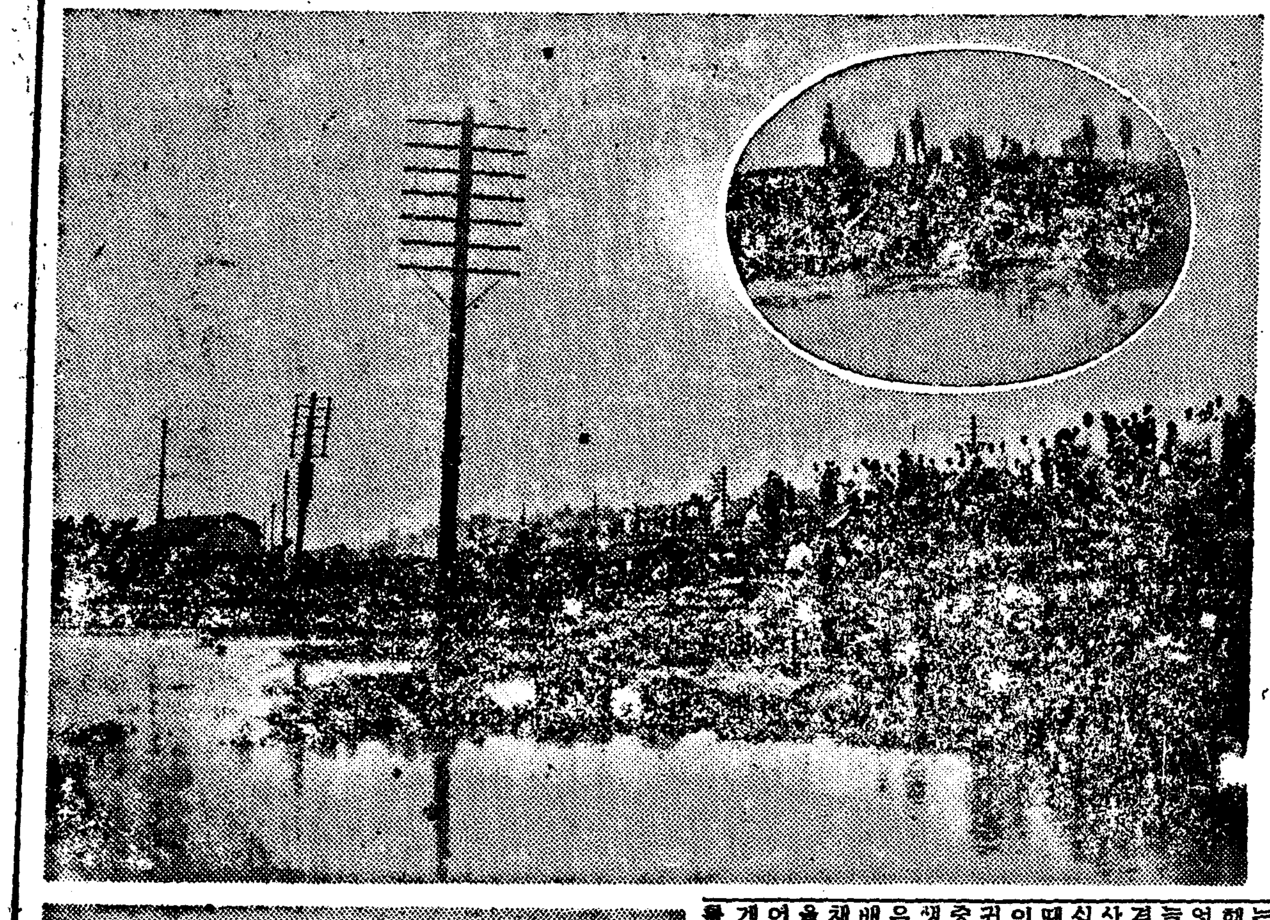
【金浦】 김포군에서는 금년이월 십일일부터 조선사람에게 창씨 제도가 실시된이래 군청, 경찰서 각면사무소, 각주재소, 각학교안에다 창씨상담소를 설치하야 [illegible] 일반의편의를 도모하는한편으로 좌담회, 강습회등을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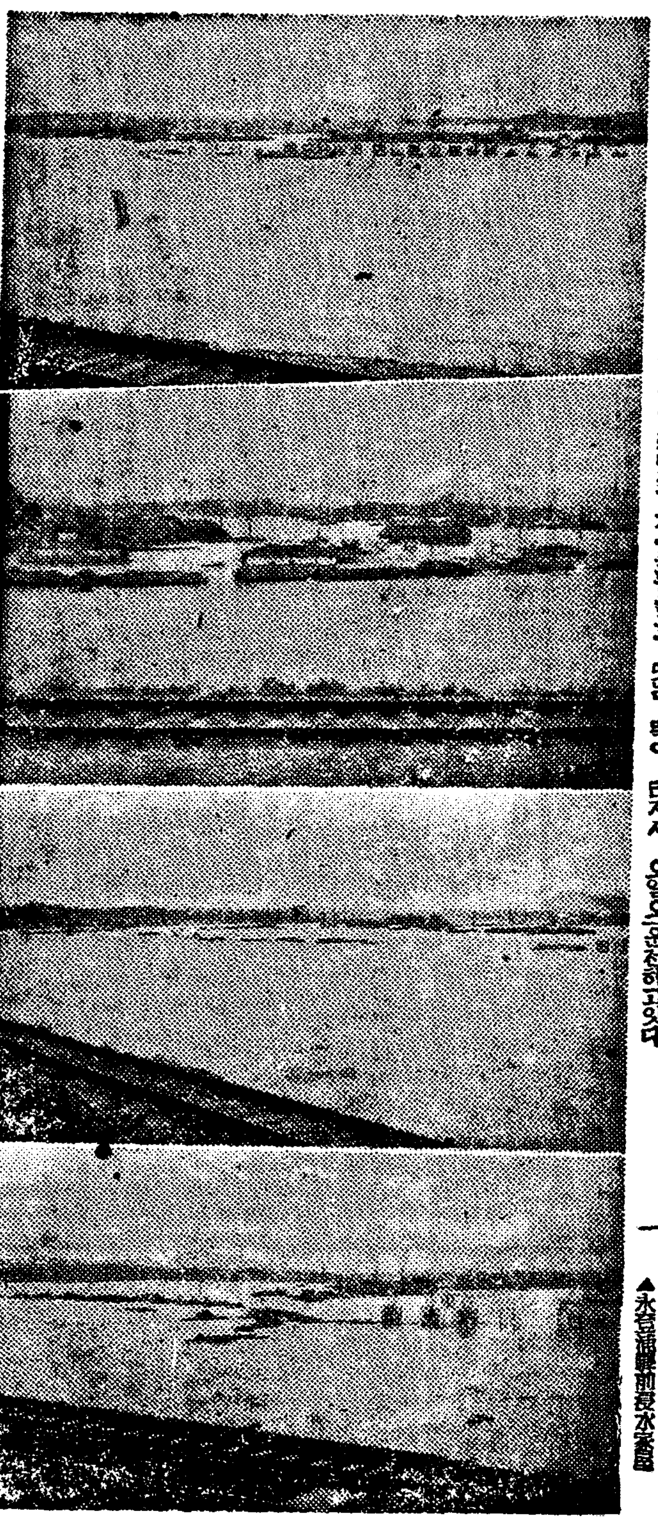
京慶北部線 兩水桐華間不通

경경북부선 양수(兩水)동화(桐華) 사이에는 이번비로 [illegible]

郡面職員總出動

【素砂】 부천일대에는 [illegible]





水害寫眞畫報
◆우로부터 開城驛前浸水 一幕 (圓內는 靑年團活動)
◆梧柳洞驛前浸水
◆梧柳洞永登浦驛前사이의浸水
◆素砂驛附近浸水
◆永登浦驛前浸水家屋

一眼科專門一
醫學博士 河本重次郞氏
醫學博士 小玉龍藏氏
醫學博士 吉田義治氏
醫學博士 山中雀之氏
醫學博士 豊田正逹氏
一推賞一

안질에잘듯고 쓰리지않은
大學目藥
(대학목약)

안질의류행기인요새에
몸님눈에걸니지않도록
매일아침 본약을 點眼합시다

어린이들에게는特製의小兒用大學目藥이있음

치로보다여방! 본약을매일아침點眼하여주시면 視力强化와눈을아름답게해줄뿐만아니라 안질의예방이됩니다

용모의매력은 健眼에서……

눈은 人體의가장귀중한기관일뿐만아니라 용모의美醜를左右하는만큼 우리는 항상눈을잘보하여 안질의예방을함과더부러强化 美化를도모해야합니다 더구나여제로부터 제일안질이심한때이오니——즉먼지와표랑 또는땀이눈에흘너들게되거나 먼지와때가무든 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질느거나 太陽의强烈한紫外線등에로인하여 눈에고장이생기게되는것입니다만 그외에도 細微한일로안력을酷使하여 그때문에 눈이불거지고 눈곱이끼며 아품을늣기게되나니 이런때에 곧본약으로치료해주시면 곧낫게될뿐만아니라 또한예방이됩니다

그것은본약만이가지고잇는특수한효력—즉殺菌防腐 收斂의强力한作用과 製法專賣特許의「우르비오레긴」配劑에依한紫外線防止作用과의相協作用에依하여 안질이계신분이쓰시면 紫外線을防止하여 자극을緩和식히면서 안질을곳치고 눈을아름답게하며 눈이큰々하신분이봉으면 紫外線을防止하여 눈을一層더 아름답고 큰々하하여주기때문입니다

쓰기좋은自働眼點器
流線型容器

본용기는 모양좋고 사용하시기에便할뿐외라 太陽의紫外線으로인하여 약효가변질되지않도록 누른병에봉어잇는고로 약효는늘 선선강력함으로 三千里江山방々곡々의여러분에게환영을받고잇는신효약입니다

適應症 결막염 도란홈 角膜炎 光線眼 疾 눈곱끼는눈 흘님안질 다친눈 삼눈 눈다래기 진물는눈 피로한눈 充血 빈눈 진물는눈 청끼잇는눈 집한눈 雪目등

定價 小瓶 二十錢 中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特大 一圓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道各地의有名藥房에있읍니다

參天堂株式會社 大阪・北京

長篇小說

青春茂盛 (98)

李泰俊 作 鄭玄雄 畫

최무주의 거는길 (4)

『나는 허선대리 인생의 엑스트라가 될게 아니라 무대에 올라서는 주연자가 되어야한다고 하엿다! 주연자! 그러나로서 해결할수잇는 연극은 어떤것일가? 인생이냐의 건설! 그러타! 연설생활자란 우선주도리져야 할거다! 여자는 남자의 뱃속에서 허어진 뼈대로 올러가거라! 두드리지는!』

특주는 여러가지 꿈생각으로 『이런 너는 이세상에서 무엇을해낼수잇는가!』 의대답은 쓰지못한채 자리에눕는다.

잠은그래도 않엇다. 낮에 미아리갓던 생각 그리고 『고 백영민지묘』란 어린사생아의 묘표가작고눈에걸린다.

『사생아! 사생아를 나은사생아 백영선! 백영선과 가른 직업의 이 천불주! 무슨짓, 무슨짓, 여급, 여급……이 불운한 계집들!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사는걸가? 맘맘? 돈인가? 사내인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나이가나타날가? 발견된다고도 민저지고 떠날거다! 여급? 너는 돈이나 사나이에의 걸이상 제게진과 제자식이잇스니까 나가튼거한테 빌붙은거지 제가 촛각 가더밧, 누가 여급을 중매한다면 아마 을 치고 덤벼거다! 여급? 너는 돈이나 사나이에의 걸이 되엿든하면서도 행복에의길은 좁은 인간들이다!』

특주는 자혹 동료들의 운명의 위치가 궁금해젓다. 순탄한 인생의 길이 여급의 길을 거치어 빼덧올리 업다.

모두 순탄한 길에서는 굴러저 떠러진 사람들이다. 어떤때 한 사정이 잇섯고, 지금은 어떤 따한지경에 머물러 잇는가 흥미에서가 아니다. 특주는 가장 손끄러기를 줍기는 저열한 여자들도 분이들이잇다. 그로 전장(戰場)가튼 전사(戰士)로 토저의진정은 둔서다.

우선 『마이뜨어』에도 자기이외에 세 여급이잇다. 그중에하나는 나미짱, 다른 둘은 『도지끄』와 『오마쓰』다. 모두 조선 여자들로 『도지끄』는 서이김(金)가이것만알고, 『오마쓰』는 성명까지 이 송숙(宋淑淑)이本名이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까지의과거는 도무지 모른다. 오마쓰는 제일 나이가 우이다. 전에 기생노릇을 한적이 잇다는 말만은 언젠가 『나미짱』한테서 들은듯하다. 손님을 구슬리는것도 누구보다 선수다. 아무리 실케 생기고 구질케 구는 손님에게라도 선내는 일이업다. 그래그런지 누구보다도 삶이 만흔얼굴이다. 이 『오마쓰』에 대이면 『도지끄』는 무어던 반대다. 생긴것도 깍깍하고, 제법위에거슬리는 손님이면 여무리 불러도 가지안는다. 어떤 손님은죽자하고 실혀하는 반대로 어떤 손님은 죽자하고 따른다. 무릅에 안즈려면 가슴에까지 안긴다. 그리고 노래를, 유행가보스러이지만 곳잘 부른다. 그래서 『도지끄』가 조하하는 손님에는 을 몹씨조하는자가 더러잇다.

『비러먹을 녀석!』

특주는 그저께 저녁에 본 도시끄의 손님 하나가 또 생각낫다. 서도 이름도 모르는자다. 『도지끄』한테 좀 반한듯 두번찬가 새벽찬가 온 손님이다. 얼굴은 노동자처럼 해에 끄럿는데 어딘사람이지 꺽세 사투리를 썻다. 오면 비싼 양주를만 배어놓고 간초를 내는 손님인데 이날도 도시끄가 한손에는 흥숙한 양주병과 모루거리는 양주잔을 『오본』에 바처들고 한손에는 『쏘세지』접시를 들고 오는데 감재기 뒤이 껴첫다. 도지끄가

『아유!』

소리를 지르기가 바쁘게 그는 서냥을 때 그엇다. 도지끄는 벌서 술잔 하나를 놓쳐 떠러트렷다. 선냥불은 꺼지려한다. 그는 이내 손이좋을 꺼내더니 꾸기꾸기해 선냥에 대엿다. 종이는가툴까가 잇는듯띤 손님에게 부탁하엿다. 모두일시이

『저런!』

하고 놀랏다. 라는것은 길중이와 백영희라 지적이기 때문이엇다.

이날저녁 그는 도지끄의 태도에 그야말로 빈리로 하나를도 주엇다. 큰 나갓다.

『좋이야!』

하고 도지끄까지 배우섯다. 『금방좋인 모양이지!』 『요전에 왓을때 빨고서이나부는 구혹이니 하던데?』

『오 저어리가 될 잘은 사람이기에는』 그것두 어떠랫든은 『어디럽 잡데서! 그러든 우도 나다.』

하고 특주는 웃음을삼섯다. 『또! 또는 어이네! 참! 천에 내가 천서생이라 돈도엇 이라고해지!』

특주는 천서생생각도 난다. 천서생 가튼 사람에게 벼칠이리가 그러케 흔하다면 얼마나 조홀 일에 쓸가! 하는 생각도 난다.

文化映畵와 素材

▼…독일 리―펜시타―ㄹ 여사의 총지휘아래에 제작된 『올림픽』 기록영화 『올림피아』의 제일부 『민족의제전』이 경성에도 이미이 입되어 서사회로 꽤치엇다.

▼…『민족의제전』은 물론 그대로 기록영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것 상식적으로 알아오던, 또는 그러(素質)때문에 너무도 소재게 해석해오든 소위 일반 기록영화와는 전연부터 갓까지 구성력 편집이 엄청나게도 다르다는데 이야기의 중점은 잇을것이다.

▼…이미 서사회로 갓벗소니까 여기서 다시금 『민족의제전』을 가지고 영화적 가치를 운운하고 심지는안는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가 다가치 생각해볼 문제로서는 소화기록영화』라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해와 해석인것이다.

▼…언제나 중요한 소재가 흥행하기 때문에 어겻을 처리해야할 결국 구성에 잇서서 흔히 편향이잇서서 실패하기 쉬운것이 기록영화가 가진바 결정인 동시에 단점이다.

▼…이러한 지적은 응에 우리영화계에서도 차츰 머리를 들기시작한 문화영화(文化映畵)라것에도 마추어 말할수잇는것이다.

▼…촌게은 어떠 정면에 나타날 소재에대하여 문혼 상식이나 지식을 뽑기하고 단순히 그장면과 장면을 해서만 새로운 지식을 가지려하고 따라서 새로운통분을 느끼려하는것을 좀 아야한다.

▼…구성의 노력 편을 써 확인하고― 오늘의 기록영화나 문화영화는 우선 이러한 기술인 엄밀에서부터 출발 하지안흐면 극영화나 매한가지로 위험하기 짝이업는것이다.

▼…그까짓 문화영화에 마 그저 섬상의적으로하지―하는 생각으로 평해버가는 『민족의제전』이 우리에게준 교훈으로 미루어보아서도 큰잘못이리라 절절히 느껴지는것이다. (Q生)

7日만은自肅開館! 事變記念日의興行街

"文化短篇映畵의"特輯"푸로"編成

오늘―즉 칠월칠일의 사변기념일에 잇서서는 지금까지의 다른기념일과는 발칙을달리하여 시내의각극장은 개판하기로 결정하엿다.

지금까지의 다른기념일에잇서서는 자숙의 의미에잇서서 시내각 상설관이나 극장은전부 문을닷고 휴업해오던것이엿스나 그러나 의연가지의 상설관만은 기민하게도 특별 『푸로』를 편성하여 가지고 뜻잇는흥행을 여지게속적으로 해나려오던 것이엇다.

그러데 특히 이번 칠열은 일요일이고 게다가 회사에서 또 노는데가 만흔 만큼 생우려 뜻기픈 일반 부민의머리속에도 성전의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켜주기 위하여사변과 인연잇는 문화영화를 『푸로』의 첫머리로 정하는 동시에 영화를 일체로 상영치 안을것과 편내의 모든흥행사들 매일 초하루의 애국일과가치 실행할것을 조건으로 시내의 각관은 흥행하기로 되엿스므로 이에 각극장에서는 시국의 특선 『푸로』를 편성하엿스며 입장요금은 애국일때와가치 몽절한은 삼십전내리어 사십전으로하고 『게트』는 오전칠시까지하기로 되엿다.

칠일 사변기념일 당일의시내 중요상설관의 『푸로』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明治座 都會의奔流(大船作品) 廣東進軍抄(朝日新聞)

★若草劇場 며칠의大將(東寶東京) 다다미稱號(東寶京都) 其他 事變映畵 數篇

★京城寶塚劇場 路傍의石(日活作品) 其他 文化映畵

★大陸劇場 『食糧과兵隊』 幼年農校』 『戰捷萬里』

揭示板

『民族의祭典』 觀覽料決定

동화상사(東和商事)제공 『올림피아』 기록영화 『민족의제전』부은 오는 구월경에나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인바 관람료는 삼원 어른으로 결정하엿고 그외에 최저요금은 아직 미정이라한다.

趙澤元氏"애트랙숀"에出演……무용가 조택원(趙澤元)씨는 오는 십팔일부터 경성보총극장(京寶)에서"애트랙숀"으로서 전작무용을 공연하기로 되엿는바 『검베』는 석정조지(石井漢枝)양이며 이와 동시에 상영할 영화는 『게리―쿠퍼―』주연의 일애종안의츄가다. (사진은 조씨와 石井孃)

海外短信

獨逸의新兵器 高音波擴聲器

(『다드룽어든』發同盟) 독군이 리에―춘 요새를 저우하는동안에 합필시켯을때에 신무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어서이 돌아다니고 잇스나 『디드롭이든』의 『로―렌스』전기기술연구소(電氣技術硏究所)의 『헤리―바이엘리―』는 장치헌논 화성기로부터 강렬하게 '이 '짓는 '시아이'이나 '마일'이나 '사'마일' 파리지지점에잇는 '폰렐크'에위하여 아마도요새로부터 일계해서 신경쇠약에 빠트리기 그러라면 독군은 실한 '왓는'보서 팔연내지 일만이천 '차이클'이란 인간이들을수잇는 최대의음파를 사용한것 오로서 귀로 들어가서 인간의 신경을 초단(寸斷)하여독히 긴장하여잇는 병대는 이것으로도 인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통 분간할수업시 착란상태에 빠진것이리라 생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 회생기를 빼게도 되 장치할수잇슬것이니까 아무런 방음장치가 업시는 여기에 대항할수가업다 이외 방어방법으로 '음' '헤엣'을 뒤집어 쓰는것이 제일이다.

英空軍의示威映畵 獨逸에서抗議

독일은 영국 『런던영화』의 『알렉산더―코르다』가 제작한 『날개를가진사자』 반독적(反獨的)이라다가 잇다고해서 항의하엿다 그런데 우리는어리케 계한다 이 영화를 어떠케해야 국방할수잇슬까 사람들로 서니곳에서는 어미 중지하기 에서상영하엿스나 북미(北米)각국에서는 뜻대로 중지되지안 헛다 그리고 동영화는 개전직후에 제작된것으로서 영국공군(英空軍)의 시위영화다.

唐怪美人 (9)

野談 車青吾

피차간 그러케 실회케대하는동에 녹족부인은 유심하게도 격장괴졔의 얼굴과 말모양을 살피보고는 다시 격장에게청하여 좌우를 물리친후에 한두를 고치서

『여보시요. 장군님 좋은바에의하면 장군님의 명령이 녹족이고 일래 신이청개여고한이 고구려땅이라니 사실이시요? 나는 실상 남자가 아니고 녹족부인이란 여자인데 장군님을 대하니 마음에 저절로 비감한 생각이 나오 그려―. 이런 말이 두나라의 강화사건과는 아무 관게가 업는말이지마는 피차에 서로 만나게된터에 장군님의 내력이나 좀 알아보고 시퍼서 뭇는 말슴이오니 실례로 알지마르시고 용서하서서 한말슴하시기 바랍니다.』

그말은 그가 녹족부인이라 말을 듯고 깜짝 놀라서 자리를 고치안즈며

『여보요. 당신이 녹족부인이란니요. 서이ㅁ다도 먼저 부인의 내력을 말슴하여주십쇼.』

한다.

부인의 주족에는 그의 봄여인은 자기의 아들을생각하고 눈물을 더러더러흘리며 목메인 소리로 자기의 내력을 자세하게 말한뒤에 또 그것을 증명하기위하여 자기의 가슴을 헤치고 젖을 내여 회니 열두곳치에서 나오는 젖이 마치 금강산 실여 나오든 쏘폭에 물쏘다져 나오는 소리처서 저절로 열두장군의 입으로 흘러가고 또 부인이 미리 지어두엇든 보선(寶子)열두커레를 주머니에서 끄내서 열두장군에게 노나주니 열두하게도 그보선이 여러장군의 발에 꼭꼭 들어맞고 조금도 틀림이업섯다.

그 열두장군은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하며말하되,

서이를 여러형제가 바다에서 경처업는 표류생활을하다가 외국에가서 자라게됨에 부모의 계신곳을 몰라 항상 철천의 한이되옵더니 이제 뜻밧게 고구려에와서 당신의 말슴을 들엇고 또 젓을 먹어보며 보선을 신어보온족 우리 어머니 신것이 분명하외다.

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되

『몰소한 자식들이 아모것도 모르는 탓으로 감히 부모의 나라를 침범하게되엇습니다.』

하니 부인도 또한 눈물을 흘리며 쉬이장군의손을 잡고 등을 어르만지며

『너이들을 나케 한것도 하는님이요, 너이들을 버리게 된것도 또한 하는님이요, 너이들을 이러케 만나게된것도, 역시 하는님이니 어찌 하늘뜻을 위반하여 다른뜻을 품수잇스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국이 잇는것이라 고국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고국을 위하여 적국을 치는것은 신민된 도리에 당연한 일이어니와 아무리 부귀영화가 몰아오려라도 적국을 위하야 부모의 고국을 치는것은 천리인간에 위반되는 일이니, 네―그리로 말고 속히 군사를 거두어 돌아가라지 그러치 안흐면 다시 고국로 돌아오너라. 나는 혹여 지실리 고구려를 위하여 몸을 바치련다.』

십여 장군은 또 일시에 일어나절하며

『네―, 엇지오리다. 알엇습니다. 이몸은 불효한 자식들임 어머니의 말슴을 뜻고이제야 확실히엇엇습니다. 모일 모임에 처이 돌아가서는 고구려 서울에가서 어머니를 만나게 될겟사오니 그리입으시사요.』

하고 그들부자는 그만허여서 버렷다.

내용으로 장자림이 되었지마는 의는 표면으로 양국간 화의는아모성과에 업시 그대로 따열할 셈이엇다.

수일후에 녹족장군의 혁제는 파면 자기의 수하병살천여기를 거느리고 밤으로서 고구려 진중으로 귀향하엿다.

그들은 자기네만 그러케 귀화하는것이 아니라 적진을 떠나 올때에 적군의가장 중요한 병기창과 군량고에다 불까지 지르고와서 적군중은 일시 수라장이되기고 또 적군은 일대지면상을 당하게되엿엇다.

그리도 또 적군은 그선봉장을 잃어버림에 마지정문(頭門)이언는 범의때 모양으로 군기가 일시에 문란하고 유언비어가 떠돌아 군심이 매우 소란하게 되는동시에 위기가 크게 조사하여진것이엇다. (계속)

오디오 JODK

修養講話 (七日午後七時五十分)

苦熱에對하여 權相老

우주안에 충만한것이 모두 성장기를당하여 초목은 지엽이무성하고 동물은 자유로이 동하고잇는속 대단조호계절갓지만 그실은사철중에 가장괴로운지절이다 겨울의치위와춥추의냉기는 이런으로 농히방어할수잇지만은 하절의더위란 덥다해도 조금도괴로움을 느끼는 업것기때문이다.

講演 (八日午後八時) 文學의時代性

白鐵

문화의시대성이라함은 문화의 영원성이란말과 대조해서 생각하면 그게더 뚜렷해진니다 문학의『영원성』이란말은 문화이 문화로는가지는 시대를초월해서 그생명이 영존되는 곳에잇다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한편문학은 결국 시대성을떠나서 존재할수업는 것입니다 문학이란 그본질에 잇서 그시대에 존재하는모든 사물을대상으로하는이상 그문학이 그시대의한게를 무시하고 생각할수는업습니다 그러면 일견서로순되는것가치보이는 이영원성과시대성을 문학이것는다면 어두가지는 어느점에서 서로통하며 조화될것인가?

放送

七日(日)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東)時報 歌謠 오늘의 어두워진것 ▲午後零時六分(東)合唱 一、愛國行進曲 二、白雲の旧き日の大刀書 信時潔作曲 三、麥秋 下總皖一作曲 四、明治大帝御製 信時潔作曲 五、大日本の歌 東京音樂學校作曲 日本放送合唱團 伊達郁 指揮 橋本國彦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同六時三〇分 라디오風景 京城放送局制作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苦熱에對하여』 權相老 ▲同七時五分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 最武器兵器의世界 ▲同八時三〇分支那事變第三周年記念日에際하여』 朝鮮總督府 ▲同八時四五分 浪花節『嗚呼李仁稙上等兵』 崔入根 ▲同九時一五分 管絃樂合唱 一、愛國行進曲 二、大陸行進曲 三、太平洋行進曲 四、空中의勇者 ▲同九時三〇分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同九時四〇分 뉴―스解說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第一放送

▲午後零時六分(東)合唱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講演 ▲同八時三〇分 野談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春香歌中春香母 金如蘭 鼓手 丁元變

八日(月)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二〇分 氣象通報 料理法『생선지지이』 日用品時勢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宋今璇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九時二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時調 三、지름 李炳成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 芝居噺 ▲同六時(東) 童話劇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四〇分 歌謠 ▲同八時二〇分(城) 朗讀 ▲同八時四〇分(城) 合唱 ▲同九時(東) 府縣巡禮

▲同七時二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六時三〇分 名作童話(二九) 韓鍚子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支那語講座(二九) 李相殷 ▲同八時 講演『文學의時代性』 白鐵 ▲同八時三〇分 野談『唐怪美人』 張志浩 ▲正午(東)時報 오늘의歌謠 ▲午後零時五分 獨唱及合唱(레코―드)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一時二〇分 家庭時間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〇時二〇分 氣象通報

九日(火)

▲午前六時(東)라디오體操 ▲同七時 宮城遙拜 ▲同一一時二〇分 家庭時間 여름과健康(二)『胃腸健康法』 醫學博士 吳漢泳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正午(東)時報 오늘의歌謠 ▲午後零時五分 歌謠曲(레코―드)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三〇分 童話『山』 李貞伊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産業講座『農村工業』 李采鎬 ▲同七時三〇分 뉴―스 天氣豫報 ▲同八時 趣味講演『朝鮮갓이야기』 柳子厚 ▲同八時三〇 소프라노獨唱 一、너의품에서쉬겟노라 체스터作曲 二、歌劇『리고렛토』中 그리운그대이름 베르디作曲 三、故鄕 中 너는내사랑 마이어베―르作曲 金鍾珠외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歸鄕』 金建作 卜惠淑 ▲同九時一〇分 京畿雜歌 一、방아타령 二、사발가 三、배뱅이 四、四節歌 五、遊山歌 申海中月 李眞紅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中等國語講座(七〇) 金鳳柱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東)吹奏樂 ▲六時(東)이야기 ▲六時二五分(城)講演 ▲七時四〇(東)歌謠 ▲八時二〇分(東)浪花節 ▲八時二〇分(大)演奏 ▲九時五分(東)제노아의歌 本▲同八時四〇分(大) 演藝

『차플린』映畵는絕望!

"유나이트"政治的作品을斷念

『차플린』의 정치적 작품인 『독재자』를 상영하기 위하여 『유나이트』 사에서는 이번 『유나이티드―아―티스트』사는 『차플린』이 제작한 영국군의 『독재자』를 수입하기를 단념하엿다 ……

지금까지 일본에 가제한작품 중에 『차플린』의 작품을 상영하게 수입하여오든 『유나이트』사에서는 어떤주에 대하여 일어나자 동시에 『야마부터』 『차―리―·촤―푸―린』이 영국정부의 지도아래 제작한 영국군국의 세계정의 『날개를가진사자』의 독재자에 대한 수입하엿고 가정에는 『챠―리―·촤플린』의 문제의 작품 『독재자(獨裁者)』를 수입하기로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고잇엇는데 그러나 어두운 문제작을 어떠케 지도할려 가 발표되어있는 바 도 자못 주목되어오던바

製作中의『게―블』

『크락·게―블』은 오래간만에 『고향』 『나의피』감독 『게니―시』가 되어 방금 『기묘한 지하의 화ㄴ』이란 신작중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대역은 『푸도』란니 벌서불레 거대가 잇습니다

和信映畵館

七月七日 支那事變記念日 特別上映

1. 日本ニュース 一番 三番
2. 滿映ニュース 二番
3. 北支ノ黎明

大陸劇場

事變記念日當日限時間表

ニュース

食糧と兵隊

戰捷萬里

東洋劇場

電光 (二)四九五番

金健作 悲劇 사랑의舖道 三幕四場

여자의主題는 水仙花가치潔白하고 百合가치淸楚한女性이 사랑을爲하여 女인의哀切한 苦悶하는多情多恨한情緒를曲線의悲哀를그린 女人의운명의 인테리 階級의世紀的인苦悶相을描寫한것이다

近日上演豫告 待望의名劇感激篇을보시라

李雲芳作 어머니와아들의幸福 안해의犧牲

團成社 高協劇團

九月公開豫告

北鎭開發 朴英鎬 作 鄭致演 作

優美館近處 四場 五八 景 幕

第一劇場

七月七日一日間 支那事變記念日映畵

東寶映畵 一、チョコレートと兵隊

一、軍艦旗に榮光あれ

其他ニュース

八日ヨリ四日間 パラマウント社超大作

テキサス決死隊

東寶特作 若い仲間

北極の猛獸狩

京城寶塚劇場

七月七日の番組

ニュース 10•00 12•30 3•30 7•30

南支派遣軍 10•10 1•00 4•00 7•10

黄金座改め 路傍の石 10•35 1•35 4•25 7•35

八日ヨリ十日マデ 三浦(?)サザン上映

若草東寶

七月七日の日支事變の上映時間表

ニュース 海のつはもの 三ツ月の杉野 兵隊さんの服 漢口攻略其の後に來るもの 10•00 12•20 2•40 5•00 7•30

われらの教官 11•05 1•25 3•45 6•05 8•35

浪花座 (?)

七月七日(一日限り) 事變三周年記念日 大衆席 二十錢均一 夜二回 一時七時十五分

東寶映畵超特作 思ひつき夫人 主演 霧立のぼる 入江たか子 アチャコ

東寶映畵 新特作 軍用列車 監督 主演 王平 小林重四郞 佐佐木信子 蘭光

鮮滿特輯 映畵 非常時日本 時局ニュース

만주 소설 少女性 八月號 特輯號 三十錢 送料二錢

優美館

七月六日より 特別大公開 大衆席 料金二十錢均一

米マスコット社超特作 連續活劇 地球下の魔人 全二十五卷中 後篇十三卷上映

ジンオトリ 主演

米フッタプロ超特作 日本版 暗黑の支那 トムキーン 主演

新興キネマ京都大作 戀愛劍法 大谷日出夫 主演

京城 三圓本 京龍

七月五日ヨリ十日マデ 上映番組(時間表)

新興京都超大作 第二の虹 新田實・逢初夢子

新興京都お伽噺映畵 花咲爺

短篇・ニュース

階下席 三〇錢 特別席 一圓

明治座

支那事變記念日當日時間表 (七月七日限)

都會の奔流 10•00

ニュース 廣東進軍抄 11•36 2•05 4•34 7•10

都會の奔流 12•29 2•58 5•27 8•05

八日より 實況 都會の奔流